

## 제 6 장

#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 : 20~21).

죄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를 경배하는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시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에 계십니다. 죄가 풍성한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 전체에 “가득 찼는지”를 묘사하기 위하여 바울은 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무한한”(페리슈오, *περισσεύ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고정된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단어에 헬라어 전치사 *ὑπέρ*(*ὑπέρ*)를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적합한 영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죄가 “증가하는” 또는 “가득 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무한함, 측량할 수

없는”(휘페르페리슈오, *ὑπερπερισσεύω*) 것입니다.

“은혜”(카리스, *χάρις*)란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의 대격 형태를 “Karen”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카리스는 “형태, 아름다움, 좌우대칭”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건축, 조각, 미술, 회화, 연극 그리고 문학 안에서 헬라인들은 형태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 헬라어 단어를 취하여 하나님께 적용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심판의 왕좌를 물러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숙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벌을 받았을 때, 이 과분한 사랑의 행위가 “은혜”라고 묘사됩니다. 죄가 “증가하”거나 “가득찬” 곳에 하나님 은혜가 끝없이—넘어서고 초월하여—넘쳐흘러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단

죄로 가득차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과 사랑을 덮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타락한 인류 안에 있는 사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과 피의 바다와 함께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고 있는 인류 안에 있는 사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사단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신문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타락한 인간을 볼 때, 여러분은 악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심판의 보편성을 따를 때, 사단은 그 사악함을 수행합니다.

###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죄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흐릅니다. 죄가 에덴 동산의 첫번째 아담에게서 가득 찼으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겿세마네 동산의 둘째 아담에게서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죄가 대홍수의 시대에 가득 찼으나 노아는 주님 편에

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죄가 애굽의 암흑과 노예 제도 안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유월절 양의 희생 안에서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죄가 미디안 사람의 시대에 가득 찼을 때 은혜가 기드온에게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왕들의 생활에 가득 찼을 때 은혜가 회개한 다윗 왕에게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죄가 바벨론 유수의 두려운 비극과 슬픔 안에 가득 찼을 때 은혜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더욱더 풍부했습니다. 죄가 형식적인 종교의 시대에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내용없이 텅빈 예배에 가득 찼을 때, 은혜는 하나님의 첫째 순교자인 스테반의 얼굴에 풍성하게 넘쳐흘렀습니다. 죄가 교회의 박해 시대에 가득 찼을 때 은혜는 다소의 사울의 경이로운 회심에서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서, 그가 한 때 파괴했던 믿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유죄 판결을 내릴 목적으로 충만하지만, 은혜는 죄를 용서할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죄는 부패시킬 목적으로 충만하지만, 은혜는 깨끗이 씻길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죄는 율법을 파괴하고 심판과 처벌의 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충만하지만, 은혜는 그 깨어진 것을 치유할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죄는 죽음과 어둠에 가둘 목적으로 충만하지만 은혜는 그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죄는 영혼과 생명을 태워버릴 목적으로 충만하지만, 은혜는 그 불꽃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그 불을 끌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죄는 살해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충만하지만, 은혜는 생명과 빛과 영광을 줄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고도 화려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

원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후서 1:9~10에서 부정 과거 분사 다섯개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영어에는 부정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이 시제는 시간상 어떤 한 순간에 이루어졌던 것 즉 행해졌고 지나갔으며 성취된 어떤 것을 언급합니다.

(1)“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인도하다’ 또는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소산토스’ (σώσαντος)].

(2)“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칼레산토스’ (καλέσαντος)].

(3)“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은혜” [‘주다’ 또는 ‘수여하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도데이산’ (δοθεισαν)].

(4)“주님이 사망을 <폐하시고>” [‘쓸모없이 만들다, 취소하다, 폐기하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카타르게산토스’ (καταργήσαντος)].

(5)“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드러내다, 빛으로 데리고 오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포티산토스’ (φωτίσαντος), 여기서 영어의 ‘사진’(photograph)이란 단어가 나왔다].

이 동사 다섯개가 모두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어떤 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는 사망을 철폐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불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얼마나 이상하고도 경이로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석방과 우리의 구원—그가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커다란 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9). 그는 불가피한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긍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요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똑같은 교훈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5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멍청한 사고와 사이비 과학자의 비정상적인 사고에서만이 “무(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로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서만, 무생물이 인격과 정신과 지성을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합니다. 피조물은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스스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건축가와 직공들 그리고 건축업자가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과 불멸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냇마와 같습니다. 은혜, 자비, 부활, 용서,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있는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이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거나 구속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님이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경이롭게 끝마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부 행하고 우리도 일부 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그의 손에 예금을 들고 은행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출납계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이 돈을 예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저쪽 끝은 당신이 붙잡도록 하고 이쪽 끝은 내가 붙잡고 있도록 합시다.” 출납계원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백치같이 의심없이 맡기는 것만을 책임집니다.” 은행을 신뢰하든가 신뢰하지 않든가 해야 합니다. 예금을 하든가 예금을 하지 않든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서 “나는 비행기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날 때 한 발은 땅에 딛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전엔 들었던 가장 얼빠진 것 중 하나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러나 나는 나의 전 체중을 신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하든가 신뢰하지 않든가 해야 합니다. 날든지 날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날아오르든지 땅에 머무르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를 신뢰하든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할 수도 있는 선함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함은

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사랑과 긍휼의 불멸성의 빛으로 들어오려는,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사모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그의 선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것 때문에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고백하는 간막이 방이나 염주, 또는 일시적인 징벌 장소나 목욕재계를 위한 장소는 없습니다.

세상의 복음은 “일하고 노력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보라, 그리고 살아라. 그것은 그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너는 단지 보고 살면 된다.” 구원의 복음은 항상 “씻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복음은 항상 “믿고 구원받으라”입니다.

나는 나의 책상에서 우연히 이 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한 그리스도인이 고품으로 쓴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기 전에 나의 영혼이 두려워하던 것은 지옥이었네.

나의 눈에 어둡고 황량한 미래가 어른거리고 있었네.

동시에 양심은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고 내면에 고뇌의 무게를 가중시켰네.

그러나 내가 그 피를 보았을 때, 피를 흘리는 그를 보았을 때 평화에 대한 나의 권리를 즉시 볼 수 있었고, 나는 황홀하여 그것을 읽었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내 자신을 발견하고  
“승리”라고 외쳤다네.

나의 기쁨은 그 피에, 나에게 들려진 그 소식에 있었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흠 없는 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이라네.

이제 나의 모든 자량은 그의 이름 안에 있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이 위대한 구원은 이르렀다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썼듯이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 은혜의 선물이며, 은총의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인간도 “내가 그것을 했다. 모두 나를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했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구원

바로 지난 세기에 유명한 불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또한 일찌기 미국이 배출했던 가장 위대한 웅변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잉거솔(Robert G. Ingersoll)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빛나는 강연 중 하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믿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스미스를 강탈하고 후에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스미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가난한 소녀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그녀가 꺾인 꽃처럼 시들어졌다면 후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은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용서란 없습니다. 영원한, 냉혹한 끝없는 정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믿는 바입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 그 불신자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영원 무궁한 정의를 그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냉혹하게,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같은 인간들이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한 것 때문에 죽음의 댓가를 치르는 하나의 거대하고 끝없는 묘지입니다.

거대하게 높은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육중한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 뒤에서 그리고 그 철문 뒤에서 모든 인류는 고통하며 죽음과 심판에 직면하여 눈물과 설명할 수 없는 비탄으로 무덤에 내려잡니다. 정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문에서 있습니다.

정의는 그 손에 열쇠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자비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비가 정의에게 울면서 외칩니다. “그 철빛장을 열고 나를 그 안에 들여보내주세요.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슬픔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가슴에 평안과 소망을 주도록 하겠소. 그 문을 열어 나를 들어가게 하시오.”

정의는 울고 있는 자비에게 대답합니다. “안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깨뜨렸고 율법을 어긴 응보는 사망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으면 정의가 죽습니다. 정의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말하고 정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사자인 천사들이 천상의 사명을 띠고 지나가다가 자비가 정의의 문에서 울고 있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멈춰서서 자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자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슬픔과 죽음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정의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의가 자신을 변호하며 하늘의 사절인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지 않으면 정의가 죽습니다.”

그 때 천사의 무리로부터 한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은 태도와 자세로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그가 정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만일 율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우주는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는 처벌 조항을 가지고 명령되어야 합니다.”

중력의 법칙, 그것을 깨뜨리면 여러분은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불의 법칙 그것을 깨뜨리면, 여러분은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폭발 운동의 법칙 그것을 깨뜨리면 여러분은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며, 법칙은 그것이 별칙으로써 강제되기 때문에 법칙입니다.

도덕법칙이 강제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며 죄진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요구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법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빛은 갚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정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빛을 갚는다면,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들을 풀어줄텐가?”

정의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빛을 갚는다면...”

그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부한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때 나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고통을 보고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그 빛을 갚는다면,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정의가 대답합니다.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언덕 위에 정해진 시간에 자비와 정의가 기다리고 서 있

입니다. 그 언덕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 순간은 창조 이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모든 어린양들, 바쳐진 모든 희생물들, 주님 앞에 뿌려진 모든 핏방울들이 그 날의 한 유형입니다. 은혜의 모든 예언들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내려놓으셨습니다(사 53:6).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예언된 바로 그 정확한 때인 69번째 주간에 정의가 자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가 대답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오십니다. 그 뒤를 그의 교회가 울며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언덕에 올라와 정의에게 왔습니다. 정의는 그 손에 우리에게 대한 법령과 명령, 율법과 형벌과 심판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의의 손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았고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정의가 죽음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그리고 이 희생물을 다 태워버리라.” 죽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온다. 내가 희생물을 다 태운 후에는 세상 전체를 죽이고 태울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물에 내려와서 법령과 율법과 형벌 그리고 판결을 다 태웠고 그의 인간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그의 순수함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만졌을 때 그는 마치 1조의 힘을 가진 전선의 볼트를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죽음 자체가 타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날 십자가 위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어두움이 갑자기 빛을 가리고, 충격을 받은 땅이 죽은 자의 무덤을 갈랐습니다! 그 주간의 첫째날인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은 승리를 거두고 나오셨습니다!

자비가 그 광경을 보고 기쁨과 환희로 울었습니다. 은혜가 그 광경을 보고 풍부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육중한 철 대문

이 넓게 열렸기 때문에 전 세상에 걸쳐 구속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찬양을 하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악마는 불의 호수에 던져졌고, 구속되어 기쁨에 넘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그를 찬양했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 5:12).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대해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영원 무궁히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명의 케루빔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물 네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영원히 영원히 살아계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속합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습니다. 죽음과 죄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범죄함과 죄악으로 무력합니다. 불멸함과 부활이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 걸어갑니다. 나팔이 울리고 천사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놀라운 주님을 영원히, 영원 무궁히 찬양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사모하고 찬양하며 모입니다. 죄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